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윤희진(최유경), 김성종(윤현영), 이필레, 공희라, 김병율(이영숙A), 김윤주, 김중진(한안나), 김지한(유소정), 김진희, 김창길, 김춘화, 문영원(이명희), 박금엽, 박순자, 박영식(성미영), 방석태(차옥자), 방현식(이난수), 백성현(안지영), 신동욱(문수경), 오택현, 윤영준(박진숙), 이미영, 이선미, 이소은, 이옥남, 이일로, 이찬호, 이형욱, 이희환(박희영), 이희재, 장윤주(김현진), 정기성(심순옥), 정은천, 채희춘(황영옥), 최기훈(정계숙), 무명.(총37명)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윤희진(최유경), 이필레, 김병율(이영숙), 김원재, 김준구(이소은), 김태수, 문영원(이명희), 박금엽, 박복례, 박영식, 성미영, 안금자, 이선미, 이찬호, 이형욱, 이희환(오희정), 임영자, 정기성(심순옥), 채영엽, 최기훈(정계숙), 류정현, 류형도, 바울남전도회.(총22명)

☞ **감사헌금**

이필레, 김병율(이영숙A), 김현구(서재희), 김현숙, 방복순, 오영순, 이선미, 이윤옥, 이인숙, 이춘취, 전영선, 정기성, 정영심, 채영엽, 최선미, 박부웅(최귀남), 에스더여전도회.(총17명)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이필레, 김민성, 김민혁, 김정훈, 김지훈, 김청숙, 김춘화, 민옥희, 박은숙, 박정숙, 박희영, 백경자, 서재희, 송백현, 신지현, 신현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노을, 이미영, 이설아, 이옥남, 이인숙, 이춘호, 정국순, 주성택, 최귀남, 최봉순, 홍은민, 홍준민, 황영옥, 무명.(총37명)

주간 성경연구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2015년 제22주 : 유다서 1장 17 - 25절/열왕기하 1장 1절 - 3장 27절				
주 일	유다서 1장 17 - 25절			
월요일	열왕기하 1장 1 - 8절	목요일	열왕기하 2장 15 - 25절	
화요일	열왕기하 1장 9 - 18절	금요일	열왕기하 3장 1 - 12절	
수요일	열왕기하 2장 1 - 14절	토요일	열왕기하 3장 13 - 27절	

원로장로	이태일					
시무장로	정기성 윤조준 방석태 윤병호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윤정호 배경철 임만순					
은퇴장로	오만식 방현옥 장명원 이해석 정공식 이원가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교역자	부목사	윤희진				
	강도사	김성종				
	전도사	이필레				
	교육전도사	문수경 이승이 최유경				
찬양대	지위자	할렐루야 : 김한나 시온·애덴 : 최원지		호산나 : 김안나 엔젤 : 이난수		
	반주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강민주 김미희 김상훈 유광희 이주하 정혜지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솔리스트	김안나 박선희 고광훈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국: 김정숙 수리남: 안석렬 이성옥 A X 국: 박동권 김명화		이집트: 김신숙 A X 국: 김해월 A X 국: 이훈옥		
	협력선교사	태국: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김흥기		태국: 박경환 이순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찰회 용정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오픈도어선교회					

2015. 5. 24 주일 예배 설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24절

설교: 이진우 목사

신학자 폴 틸리히는 “교회 안에는 장자는 교인이 60%요, 눈뜨고 앉아 있는 교인이 30%이며, 눈뜨고 움직이는 Active member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그 삶 속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뜨겁게, 은사로 강하게 변화되어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령주일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본문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행하라”는 헬라어는 “페리파테이데”로서 “걸어 다님, 습관적으로 행하는 윤리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예전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습관적 모습에서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생각과 계산과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 성령을 따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2) 사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사고방식의 산물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고, 데카르트는“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만큼 생각과 사고가 인간존재의 근본이 됩니다. 성도의 생각과 사고의 중심에서는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생각과 사고가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 때, 성도는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마침내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되고 맙니다. 때문에 성도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우리가 육의 생각을 버리고 선한 생각을 하며 선을 행하려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을 좇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참 생명과 평안에 이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령 충만을 받아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의 복을 받는 주님의 사랑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1) 본문 19~21절 말씀에 열거되는 죄의 열매는 모두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성적인 죄, 둘째, 종교적인 죄, 셋째, 인간관계에서 벗어지는 죄, 넷째, 자신에 대한 무질제의 죄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지만 참된 믿음은 그 열매로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2) 참 믿음의 소유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기 “성령의 열매”란 헬라어 “호테 칼포스 투 푸뉴마토스”로서 “성령의 그 열매”입니다. 오직 하나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벵겔은“육체의 일들이 복수인데 대해 성령의 열매는 단수인데 주목해야 한다. 육체의 일은 계통 없이 많이 나타나 성령의 열매는 한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맺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거듭난 성도의 삶 속에 맺히지는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요, 영혼의 모습입니다.

3)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인격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이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 속에 맺어지는 그리스도인의 고상한 인격과 성품의 열매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목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는 목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는 목표, 영원한 천국의 합작자가 되려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성공적인 새 생활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1) 본문 24~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육체를 따라 행할 수 없고, 육체를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2) 여기 “행함”이란 헬라어는 “페리파테오”로서, 단순히 “거니는 것”과는 다른 뜻으로 본문에서는“목표를 향해 줄지어 당당히 걸어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새 생활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삶의 진정한 승리로 성공입니다.

3) 수년전 뉴욕에서 결혼식을 막 끝낸 웨딩차가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그 결과 신랑과 그의 동생은 죽사, 신부는 혼수상태, 신부의 여동생 또한 경상을 입었습니다. 난폭운전, 음주 운전자에게 핸들을 맡겼을 때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핸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할일은 오신 성령님을 환영하여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1 - 22

2015. 5. 31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세!” [시편 80편 7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2-09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 18Gyeongin-ro 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